



**SEASON OF
CREATION**

창조시기 안내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



에큐메니칼 교회 지도자들의 초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와 형제 여러분,

창조시기는 전 세계 에큐메니칼 가족이 하나되어 우리 공동의 집, 곧 하느님의 집 (오이코스 Oikos)에 귀 기울이고 돌보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창조의 부르짖음에 함께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연례 축제입니다.

이 경축의 시기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인 9월 1일에 시작하여 많은 그리스도교 교파에서 사랑받는 생태분야의 수호성인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인 10월 4일에 막을 내립니다. 올해는 로마서 8장 19~25절에서 영감을 받아 "희망의 첫 열매"라는 상징과 함께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라는 주제로 연대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에큐메니칼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올해 창조시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초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 여정에서 에큐메니컬 가족에게 영감을 주기위해 자신의 묵상을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 도처의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와 함께, 창조세계를 위해 일하는 희망과 행동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위한 기도와 행동의 에큐메니칼 시기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표현한 그리스도교 가족의 신앙 지도자들이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에게 하는 초대의 말을 소개합니다.



“



"아무리 부정하고 숨기며 위장하거나 상대화하려고 하여도, 기후 변화의 표징들은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극단적인 현상들, 잦은 이상 고온, 가뭄 그리고 지구의 다른 부르짖음들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 우리의 집인 지구와 화해하고 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이 순례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is Holiness Pope Francis, Bishop of Rome, Roman Catholic Church



"35년 전, 우리의 존경하는 전임자 디미트리오스 에큐메니칼 총대주교께서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특별 기도의 날로 정하고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최초의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교 교회와 신자들은 이 날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또는 '창조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신념과 그리스도교적 일치인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 긴밀히 협력하지 않고는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 보호는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His All-Holiness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Holy Orthodox Church



“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의무입니다. 창조시기는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기도와 행동으로 함께 모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는 정교회의 리더십에 영감을 받아 이 에큐메니칼 시기를 열렬히 지지합니다. 전 세계 성공회 신자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보호하고 새롭게 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의 일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ost Revd Justin Welby, Archbishop of Canterbury, Anglican Communion



"크라쿠프에서 열린 제13차 총회(2023년 9월)에서 루터교 세계연맹은 지속적인 개혁의 교회로서, 우리는 사람과 국가,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구 기온의 끊임없는 상승은 생물 다양성, 생명, 생태계, 공동체 전체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행동의 요청을 인정하며, 오직 믿음에 기초해서만 이에 응답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창조시기는 힘과 친교의 원천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도록' 격려합니다."

Rev. Dr Anne Burghardt, Lutheran World Federation General Secretary.
Photo: LWF/A. Danielsson



“



"2016년 세계감리교협의회는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창조시기'를 기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시기는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청이 처음 기념했으며, 현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하늘과 땅을 황폐화시킨 후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아들과 딸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태적 귀향은 성령의 간구를 통해 어머니 지구와 '함께 걷는'(시노달리타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섭리를 간절히 기다리

며, 시노드 교회로 쇄신하는 에큐메니칼 봄을 위한 새로운 때(카이로스)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대지로서의 피조물, 산파로서의 성령, 하느님의 입양된 자녀로서의 신자들의 거룩한 신음이라는 세 가지 '우주적' 순서를 통해 산파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사도 바오로와 함께 경축합시다!

Rev. Dr. Jong Chun J.C. Park, World Methodist Council President



"기후 변화와 재난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지구는 곤경에 처해 있으며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지구를 돌보고 지탱하는 책임감 있는 관리자이자 시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위해 더 나은 세상,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갈망하는 행동하는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 세계 보호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Rev. Prof. Dr. Jerry Pillay, General Secretary, World Council of Churches



“



"우리는 창조주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맡기
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계속 보호해
주는 창조 세계를 망쳐가며 창조주를 실망시
켜서는 안 됩니다. 탐욕과 이익에 대한 욕망
에 눈이 멀어 창조 세계에 고의로 피해를 입
히는 행위에 대해 이제 그만 멈추라고 말해야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
는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개인은 물론 기
업의 일상적인 문화와 행동 패턴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
합니다."

Prof. Michel Abs, Secretary General, the 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



"우리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조
직적인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후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한 지역사회를 지원하
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Rudelmar Bueno de Faria, General Secretary, ACT Alliance



“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청은 1989년 처음으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에큐메니칼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는 창조세계의 "간절한 갈망"과 인류의 "참을성 있는 희망"(로마서 8,19.25)을 반영하여 창조세계 보호를 위해 열정적이고 인내심 있게 옹호해 왔습니다." 창조세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응답하는 것은 더 이상 사치나 트렌드, 의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주민들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Rev. Dr. John Chryssavgis, Executive Director, Huffington Ecumenical Institute at Hellenic College Holy Cross Greek Orthodox School of Theology



"창조시기는 교회가 하느님의 세상을 돌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꼭 함께하세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리고 다같이 기도하고 행동을 취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Dr. Ruth Valerio, Director Global Advocacy and Influencing, Tearfund





"이번 창조시기에 저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돌보고 천연 자원을 보존하며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창조세계가 하느님의 자녀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창조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Seth Appiah-Kubi, National Director, A Rocha Ghana

”

우리의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환경주의나 기술주의적 대의가 아니라 보다 총체적이고 통합적이며 인간적이고 영적인 비전이자 통합생태학의 문제입니다. 기도와 실천적 옹호, 지속 가능한 행동을 통해 이번 2024 창조시기는 에큐메니칼 연대와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을 예언자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희망의 첫 열매를 맺는 이 위대한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친교를 나누며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존중하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2024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

매년 창조시기 에큐메니칼 운영위원회는 창조시기의 주제를 제안합니다.

2024년의 주제는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이며, 상징은 로마서 8장 19 - 25절에서 영감을 얻은 "희망의 첫 열매"입니다.

올해의 주제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창조세계를 대문자 (Creation)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창조세계가 인간을 위해 창조된 대상이 아니라 동료 피조물로서 함께 관계하고 협력하도록 부름받은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창조세계(Creation)를 대문자로 표기함으로써 우리는 창조 질서와 하느님의 지속적인 창조 행위의 신비를 모두 지칭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전체 창조질서 또는 전체 우주를 인정하며, 이는 자연계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존중, 경외심, 책임감, 상호의존성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의 주제와 상징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부록 3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가 해산의 진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로마서 8.22 참조).

이 성경적 이미지는 출산할 때처럼 신음하는 어머니로서의 지구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구를 창조주의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자원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이를 잘 이해하여 『피조물의 찬가』에서 지구를 우리의 자매이자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구를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어머니 지구가 우리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지구를 해치는 지속 불가능한 행위로 인해 창조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인 어머니 지구와 함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생물은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상실, 인간의 고통뿐 아니라 창조세계의 고통을 초래하는 우리의 파괴적인 행동의 결과로 인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희망한다는 것은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 신음하고 부르짖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할 때처럼 우리는 극심한 고통의 시기를 겪지만 새로운 생명은 태어납니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로마서 8,19)

창조세계와 우리 모두는 창조주를 경배하고, 적극적인 희망과 행동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조세계와 함께 일할 때만이 희망의 첫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오로 신학은 창조세계와 인류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되었으므로 서로에게 맡겨진 존재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창조세계는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자신을 겸손한 피조물로 인식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존경하며, 동시에 하느님의 선물인 피조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창조주를 향해 손을 뻗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세계는 인류가 이용하고 남용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인류는 창조세계의 일부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세계는 공동의 집을 넘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우주적 가족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본질적인 소명으로 정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식입니다.(로마서 8,19 참조)

희망의 첫 열매 (로마서 8,23-25)

희망은 소멸의 자연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직 희망을 통해서만 우리는 충만한 자유의 선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유는 즐거움과 번영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와 책임이 있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와 책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이기셨음을 알기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지구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적, 생태학적 죄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지구와 모든 피조물에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주의와 무지로 인해 창조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비현실적이고 이기적인 꿈을 이루려는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로마서 8,22 참조).

"희망에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은 분노와 용기입니다. 분노는 현실에 대한 분노이고 용기는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용기입니다." 라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와 모든 피조물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목격할 때, 거룩한 분노는 희망적



용기와 정의를 위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하느님 아들의 육화가 고난에 처한 세상을 직면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도전에 대응하려는 노력에 우리와 함께하십니다(로마서 8, 23 참조).

희망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유토피아적 환상이 아닙니다. 마법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은 행동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합리적이라는 믿음입니다(로마서 8, 24 참조). 희망은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앞부분에서 성장 과정과 희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로마서 5, 4). 인내와 수양은 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내와 수양은 희망으로 이끄는 자질입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를 제어하기 위한 대담한 행동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고 있으며, 인간은 생각과 마음, 생활 방식을 바꾸는 데 완고하기 때문에 생태적 전환이 더딘 과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으며 긴박함과 느린 변화의 리듬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습니다.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느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온 우주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신뢰하고 따르도록 부르심받았습니다(로마서 8, 25 참조).

일부 언어에서는 바오로서간의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희망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희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참조: 로마서 8,20-21).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을 품고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문화와 국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포르투갈어 동사 '에스페란사르 esperar'와 스페인어 '에스페란자르 esperarzar'는 피상적인 긍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희망을 적극적인 동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에서는 이 개념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태도를 연상시키는 "에스쁘아 espoir"와 하느님의 빛에 비추어 적극적인 희망을 표현하는 "에스페랑스 espérance"가 그것입니다. 아랍어에서도 "아말(أمل)"과 "라자(رجاء)"를 구분하는 동일한 뉘앙스가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가 "희망"에 대해 말할 때 의미하는 바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 창조시기 기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당신이 창조하신 지구 안에서
저희가 사랑과 양분, 보금자리와 보호를 얻으며
우주의 한 가족으로 공동의 집에 살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다양성 안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니 찬미받으소서.

그러나 저희는 지구를 당신 모성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기심과 탐욕, 경시와 남용으로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손실,
저희 동료인 모든 피조물과 인류의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지구의 탄식과 모든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저희 안에 살아 계신 희망과 정의의 영이
탄식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신 창조의 영으로 저희의 나약함을 도와주시어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과 희망을 알게 해주소서.
성령의 탄식으로 저희 안에
당신을 충실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어
창조세계의 탄식에 귀 기울이며 치유하게 하시고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여
희망의 첫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의 창조주 하느님,
저희가 탄식의 소리에 깨어 있게 하시어
당신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로서
구원의 주님인 예수님께서 지니신 똑같은 연민의 마음으로
지구와 저희와의 관계 그리고 저희 서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소서.

모든 피조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국제 행사 일정

전 세계의 각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창조시기를 기념하지만, 몇 가지 이벤트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조시기 웹사이트의 국제 행사 일정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창조시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두 차례의 온라인 기도회와 아래 설명된 옹호 행동의 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온라인 기도회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혹은 창조의 축일이라고도 불리며 매년 창조시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저스틴 웰비 대주교, 세계교회협의회 및 기타 많은 지도자들이 신자들에게 이 날을 축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교인들은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공동의 대의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SeasonOfCreation.org 와 소셜 미디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21일: 옹호 행동의 날

올해 우리는 옹호에 관한 에큐메니칼 공동의 행동 요청에 집중하는 특별한 날을 맞이합니다. 화석연료비확산조약(FFNPT)을 지지하는 행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제 79차 유엔 총회는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촌 가족으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전 세계의 정의와 희망을 위한 강력한 행동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의 이전 섹션 '옹호활동'을 참조하십시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기"에 대한 이전 섹션 또는 SeasonOfCreation.org의 [리소스 페이지](#)에 있는 옹호 섹션을 참조하세요.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많은 전통에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창조세계를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침을 주는 분으로 여깁니다. 10월 4일은 성인의 기념일이자 창조시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전 세계 신자들은 창조시기 에큐메니칼 청년 위원회가 준비한 온라인 이벤트에 모여 한 달간의 여정을 함께 축하할 예정입니다.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창조시기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시기 소개

창조시기는 해마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동안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초대받습니다. 창조시기를 통하여 전 세계 그리스도교 가족은 같은 목표 아래 하나가 됩니다. 또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역사

1989년에 동방정교회 총대주교 디미트리오스 1세께서는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2001년에 유럽의 다른 주요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이를 수용하였고,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9월 1일부터 가톨릭 교회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인 10월 4일까지의 기간을 "창조시기"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피조물의 찬가"를 지었으며 생태 분야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모든 이의 주보 성인입니다.



2003년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 2007년 시비우에서 열린 유럽 제3차 유럽 에큐메니컬 회의 및 2008년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지난 몇 년간 성명서를 발표하며 신자들에게 한 달 동안 계속 되는 이 기념 시기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 시기를 기념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세계교회협의회, 루터교 세계연맹, 찬미받으소서 운동, 성공회 환경 네트워크, 라우산느/세계복음주의연맹 창조관리 네트워크,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중동교회협의회, 유로피아 기독교 환경 네트워크, ACT 연합, 아로차 인터내셔널, 세계감리교협의회, 크리스천 에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로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에서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대화"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새롭고 보편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긴급한 요청에 영감을 받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한 창조시기 에큐메니칼 청년위원회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SEASON OF CREATION

